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12

1996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총회
창조회

12

1996

가정예배 · 구역예배 안내서

충현의 만나

이 달의 말씀 ·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기 도 제 목

1.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교회와 성도들을 위하여 헌신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담임 목사를 속히 허락하소서.
2.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가 되도록
3. 김창인 원로목사님의 건강과 영력 넘치는 사역을 위하여
4. 모든 교역자들과 당회원들의 성령 충만을 위하여
5. 구역예배가 살아 움직이고 구역 조직을 통하여 교구가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되도록
6. 교회 모든 위원회와 부서들의 질적, 영적 부흥과 성장을 위하여
7. 민족 복음화와 복음으로 인한 남북통일이 속히 이루어지도록
8. 나라와 민족과 교단과 대통령을 비롯한 위정자들을 위하여



충현의 만나

1996년 12월

『충현의 만나』는 성도들의 가정예배를 돕기 위해
충현교회가 매달 발간하는 간행물입니다.

고린도전서 서론

본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3차 전도 여행 중에(행 19:1-10) 에베소에서(고전 16:8, 9, 19) 기록한 성경입니다. 아가야 지방의 수도인 고린도에서는 무역과 상업이 성행하였으며 우상 숭배와 부도덕이 난무하였습니다. 이같은 지리적인 위치와 철학적, 지적 특성으로 인해 고린도교회는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바울 사도는 이미 다른 한 통의 편지를 고린도교회에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고전 5:9).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쓴 목적은 고린도교회에서 제기된 몇 가지 질문들에 답하고(고전 7:1, 8:1, 12:1) 고린도교회 안의 분쟁과 잘못된 움직임들을 지적하고 바르게 고치기 위함이었습니다(고전 1:11, 5:1, 6:1, 11:18, 20). 그래서 고린도전서는 그리스도인의 실생활과 관련된 매우 광범위한 문제들이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문제들은 당시의 고린도 교인들에게만 아니라 오늘날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여전히 깊은 주목을 받고 있는 부분입니다. 한편 본 서신에는 사랑장(13장)과 부활장(15장)이 실려 있어서 사랑과 부활에 관한 구체적이고도 확실한 증거를 남겨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구조

- | | |
|---------------------------|-------------------------|
| 1. 서론(1:1-9) | 2. 교회 안의 분쟁(1:10-4:21) |
| 3. 교회 안의 도덕적 혼란(5, 6장) | 4. 결혼과 독신 질문에 대한 답변(7장) |
| 5. 우상 계물에 대한 논평(8:1-11:1) | 6. 공중 예배 문제(11:2-34) |
| 7. 영적 은사들(12-14장) | 8. 그리스도와 신자들의 부활(15장) |
| 9. 마지막 교훈들(16장) | |

“...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20:9)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아침에 마리아가 먼저 무덤에 와서 보고 베드로와 요한에게 말했습니다. 두 제자들도 무덤에 와서 확인한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구약 성경의 부활 예언 말씀(시 16:10, 11 등)을 아직도 생각하지도,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빈 무덤 곁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천사가 울지 말라는 뜻으로 말했으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지 못해 슬퍼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보고도 동산지기인 줄로 알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실 때에야 비로소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 보았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를 때 양들이 그의 음성을 듣고 알아보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나를 만지지 말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이것은 몸을 만지는 것 자체를 금하신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에는 여자들이 예수님 발을 잡고 경배했다고 기록하였습니다. 또 도마에게는 오히려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막으신 이유는 마리아에게 이제는 부활 전과 같이 사 람들과 교제하는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승천과 성령강림으로 인한 영적인 교제가 계속될 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대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우리의 불신앙과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믿음은 세워집니다. 그러나 믿음 더욱 주시도록 항상 소원하고 기도하고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믿음에는 반드시 말씀이 근거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 말씀을 귀히 여기고 그 말씀을 배우고 믿고 순종하여 믿음에서 믿음으로 더욱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말씀대로 믿는 믿음을 더욱 주소서. ②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소서.

『...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같이 ...』(20:21)

주일 저녁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첫 말씀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제자들을 보낸다고 하셨습니다. 또한 성령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평강이 있어야 사역을 감당할 수 있으며 성령님의 내주로 가능합니다. 사역은 사죄를 전하는 것이며 성령의 역사로 사죄의 확신을 가진 자만이 사역할 수 있습니다. 사역이란 바로 전도하는 것입니다. 전도의 결과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다 사죄를 믿고 또 체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없이는 평강이 없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도마는 예수님이 나타나셨을 때 함께 있지 않았습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 직접 보지 않고는 못믿겠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풍성한 사랑으로 도마에게도 믿음을 주고자 한번 더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는 손가락으로 못자국과 창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는 신앙고백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라고 적게 하셨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에 잔잔하게 끊임없이 흐르는 평강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인해서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리고 사죄 때문에 평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불안한 이 세상에서 평강의 복음을 사랑으로 전해야 합니다. 우리는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인간적인 기교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죄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성령님의 능력으로 전함으로 가능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평강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게 하소서. ② 김창인 원로목사님이 성령충만함과 강건함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소서.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저희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같이 …』(21:13)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평강의 선포를 듣고 보내심을 받은 제자들이지만 아직 성령의 임재는 없었습니다. 일곱 명의 제자들이 고기잡이 하러 갔습니다. 밤새도록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 이 현장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물을 오른편에 던지게 하시고 고기를 많이 잡게 하셨습니다. 육지에 와보니 이미 예수님께서 숯불과 생선과 떡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친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것입니다. 떡도 주시고 구운 생선도 주시고 조반을 먹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밤새도록 고생하는 현장을 외면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조반으로 먹을 생선도 없는 낙심이 되는 삶의 현장을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연약한 인간임을 잊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성령충만하여 전도하려 다닐 때는 식사를 거를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감당치 못할 어려움을 허락지는 아니하십니다. 길도 주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늘 지켜 주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허기를 해결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는 것같이 우리도 그러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배, 기도, 성경공부, 찬송, 전도, 봉사, 구제할 때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들이 사업, 직장, 학업, 가사, 여행, 수면, 휴식, 입원, 실수, 사고, 언쟁, 낙심, 실망 중일 때에도 늘 함께 계시며, 자상하시고 인자하신 사랑을 구체적으로 보여 주시고 체험케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을 인하여 늘 감사하며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며 승리의 삶을 삽시다.

▶ 기도 제목 / ① 내 모든 형편 잘 아시는 주님을 신뢰케 하소서. ②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담임목사를 하루 속히 보내 주소서.

『...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21:15)

기독교를 대표하는 단어 하나를 말하라면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자격으로 성도의 사랑을 확인합니까? 첫째, 영혼의 주인으로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구속'이라는 단어가 암시하듯이 예수님은 우리의 몸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우리를 자신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주고 사신 예수님의 소유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값주고 사신 후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며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자유와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예수님은 사랑을 확인하신 후 성도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영혼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합니까? 둘째, 친구로서 사랑을 확인하십니다.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사람과 친구 관계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결코 상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영혼의 주인이시며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우리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은 얼마나 더 감격스러운 일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당연히 친구로서의 사랑을 확인하실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 영혼의 주인으로서 또한 친구로서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 확인에 얼마나 자신있게 '예' 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는 사랑할 수 있기 위해 성령님께 끊임없이 도움을 청하여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께 자신있는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랑을 확인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충현교회가 되게 하소서.

“...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1:10)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교회 분쟁의 주요 원인은 어느 특정 지도자를 따라 형성된 파벌이 상호 적대감을 유발시킨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13절에서 강한 반문을 통하여 그리스도 안에서의 유기체적 지체 의식을 강조했습니다. 고린도교회에는 네 개의 파당이 존재했는데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그리스도파가 그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 네 가지로 진단을 내립니다. 즉 교회 분열의 첫째 원인은 사람이 낮은 본능에 의해서 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교인이 분열하는 것은 영적 생활을 하지 않고 육적 생활을 하기 때문이며, 셋째는 자신의 지혜와 자기의 능력을 자랑하는 교만에서 분열이 생기고, 마지막으로서는 경쟁심이 분열을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네 가지 진단의 결과를 가지고 바울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 해결의 처방을 내렸습니다. 이 권고에서 바울은 십자가에 못박히신 분은 그리스도이시며 세례도 오직 그리스도의 권위로만 베풀어진다는 사실을 주지시킨 것입니다.

현대의 교회 안에도 분쟁으로 인해 많은 분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나뉘지 않은 온전한 분이시므로 우리는 분파를 초월해 하나일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주권으로 우리는 모두 일치되어야만 합니다.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음으로써 명실상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모두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입니다. 왕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일치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지 못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님을 중심으로 일치하게 하소서. ② 교역자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의 능력으로 귀한 사역 잘 감당하게 하소서.

『십자가의 도가 ...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1:18)

참된 사랑의 고난, 인류를 위한 하나님 스스로의 처절한 고통당하심, 생명에 이르는 고난, 이것이 십자가의 도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어떻게 각 사람들에게 작용을 합니까?

첫째,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입니다. 사람들은 생명의 길을 무시하고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바람직한 삶의 길에 대해서 무관심할 뿐 아니라 구원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 십자가의 도는 자신의 능력과 지혜를 의존하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그저 어리석고 미련한 이야기에 불과할 뿐입니다.

둘째,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선택을 입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삶을 삶되게 하고 올바른 존재로 하나님나라의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들은 이 십자가의 도를 받아들임으로써 그 자신들도 세상에서 십자가의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도 십자가의 도를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 마침내 승리하는 성도들이 됩시다.

셋째, 십자가의 도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도는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삶을 살게 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이 하나님의 지혜를 온 몸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이 세상의 지혜를 거부하고 그릇된 세상의 물결을 거슬러 올바른 지혜이신 예수님의 정신을 현실 속에서 구현하면서 살아갑니다. 우리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사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항상 십자가의 도만 증거하고 하나님나라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당회원들이 교회를 사랑하신 주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의 ...』(2:6)

육의 몸을 입고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모든 역사와 인간 삶의 본질적인 전환을 가져다 주는 참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그 지혜는 첫째, 이 세상의 없어질 지혜가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영원한 삶의 지혜요, 생명의 지혜입니다.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지혜를 통하여 이 세상에서 바르고 곧은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결단코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웃을 무시하거나 고통스럽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웃과 함께 그리스도의 지혜를 나누게 하여 함께 하나님나라에 이르게 합니다.

둘째,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영광의 지혜입니다. 다름 아닌 구원의 지혜요, 해방의 지혜입니다. 죄악에 빠진 우리 인간을 위하여 마련하신 지혜입니다. 그런데 이 그리스도의 지혜는 이미 만세 전에 하나님께서 그 오묘하신 경륜 속에서 미리 정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지고하고 오묘한 지혜를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합니다.

셋째, 오직 성령을 통해서만이 이 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지혜는 인간의 어떤 방법으로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이 지혜를 우리 인간에게 보이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하나님 자신의 깊은 속을 헤아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령을 통하여서만이 아무런 자격도 없는 인간에게 만세로부터 정하신 그리스도의 지혜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어졌다는 사실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영원한 지혜는 그리스도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바로 참된 지혜의 길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세상의 그릇된 지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지혜로 삶을 살면서 참 지혜를 이웃들에게 전하는 성도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 직원들이 모든 일을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게 하소서.

『...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3:1)

구원받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영적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분쟁과 시기를 일으키고 교회의 부흥과 성장의 거침돌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을 어린아이, 육신에 속한 자, 영적인 미숙아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영적인 미숙아 입니까? 첫째로, 고린도교회 교인들은 영적으로 충분한 이해력과 분별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내적인 음성을 듣지도 못하였고, 복음에 나타난 십자가에 못박히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도 못하였고,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삶의 방향도 잡지 못하였습니다. 둘째로, 그들은 아직도 육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령을 좇아 행하기보다는 세상적인 표준에 따라 살았고, 육적인 욕심과 탐욕에 매여 살았습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영적인 성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과 그 이름에 대한 관심보다는 자기의 욕심에 사로잡혀 분당을 짓고 상대방을 헐뜯기를 좋아합니다. 또한 설교도 부드럽고 자기의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 듣고, 단단하고 책망적인 설교에는 스스로 귀를 막고 안들으면서 너무 어려우니 좀 더 쉬운 내용으로 설교해 달라고 요청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미숙아의 증거입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하십시오. 섬김을 받기를 좋아하기보다는 겸손히 남을 섬기고, 남에게 부담감과 손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남의 짐을 짊어지고 교회에 유익을 끼치는 성도로 성장하십시오.

▶ 기도 제목 / ①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 장성한 신앙인으로 성장시켜 주소서. ② 교회 일꾼들이 맡은 사명 잘 감당하게 하소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3:16)

집의 가치는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기 때문에 빛납니다. 아무리 좋은 집이라도 그 안에 사람이 살고 있지 않다면 그곳은 곧 폐허가 되고 맙니다. 바울은 성도를 하나님의 성전이며, 성령이 거하시는 귀중한 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의 참 진가는 자기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릇된 시기와 분쟁으로 사분오열되어 있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거룩한 성전임을 강조하면서 스스로 잘못을 깨우치고 돌이키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이것은 오묘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을 향하여 정결하게 열려져 있어야 할 것이며, 항상 성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자신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면서도 자기 자신을 더럽히는 범죄를 저지를 때 결코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지 않으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의 몸은 하나님의 성전이기에 더 이상 자기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도구로 쓰임받는 청지기라는 것을 늘 인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성전된 자신의 몸을 가지고 더 이상 세상의 흐름에 따라 살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생활을 할 때에 비로소 사회와 역사 속에서 그리스도의 푸른 계절이 오게 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인식하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해 주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교회의 모든 위원회가 하나님의 선한 사업에 힘쓰게 하소서.

『그리고 말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4:2)

‘일꾼’이라는 말의 원어를 보면 ‘천한 노예’라는 뜻입니다. 지금은 노예가 없지만 근대국가를 이루기 전에 동서양 나라들에는 많은 노예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노예들은 있는 힘을 다해 충성을 할 때 주인이 그 충성을 인정해 주어 주인집의 전체 살림을 맡는 책임자까지 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 보면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들이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기면서 충성을 다할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하는 판단에 좌지우지 아니하고 다만 주인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판단만을 기대합니다. 그리스도의 일꾼은 사람의 판단을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하거나 함부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한 후에 행동에 옮기며, 하나님의 원하시는 일이라는 확신이 있을 때 목숨을 걸고 헌신해야 합니다. 세상 일을 맡은 자들도 성실하게 일할 때 칭찬을 받습니다. 자기에게 돌아올 대가에 집착하지 않고 자기에게 맡겨진 일에 온 정성을 다할 때 이런 사람을 보고 우리는 책임감 있는 사람, 혹은 충성된 사람이라고 인정해 줍니다. 하물며 인생의 가장 귀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은 더 말할 나위 없이 최선을 다해 충성을 다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직분을 귀중히 여깁시다. 우리에게 주신 직분을 소중히 여기고 최선을 다해 충성할 때 하나님이 의의 면류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이 맡겨 주신 직분에 최선을 다해 충성하게 하소서. ② 찬양대원들이 하나님께서 흠향하실 영적 찬양을 부르게 하소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에 음행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 하였거니와.”(5:9)

어느 사회에서나 음행은 가장 지탄받는 죄악입니다. 번창했던 로마제국이 망한 것도 극도로 타락한 윤리와 음행 때문입니다. 고린도 지역에서 음행이 공공연하게 자행되었는데 그 영향이 교회내에까지 파급되어 음행의 문제로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음행한 자가 하나님과 형제들에게 중대한 죄악을 저질렀으면서도 오히려 자신의 죄를 부끄럽게 여기지도 않고, 회개하기는 커녕 교만하고 당당하게 교회내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고린도교회 지도자들은 이런 음행을 보고도 심각하게 생각지도 않고 그 문제를 처리하지도 않았습니다. 이를 알게 된 바울은 음행이라는 사실 자체에 분노하면서 그 교회 지도자들과 성도들이 음행한 사람들을 대하는 그릇된 태도를 크게 책망했습니다.

그러면 왜 바울은 교회내에서 음행의 사건을 단호하게 처리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까? 음행은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파괴하고 교회의 올바른 질서를 깨뜨리는 용서할 수 없는 범죄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바울은 음행한 자들을 처리하지 않고 적당하게 넘기는 교인들의 태도를 책망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단죄할 것을 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교회의 거룩함과 교회의 질서를 유린하는 자를 교회는 그냥 방치해서는 안되는 것입니다. 교회의 순결성과 공동체의 질서를 위하여 범죄한 자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바른 권징을 행할 수 있어야 함을 잘 교훈해 줍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순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올바른 권징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② 교회학교 교사들이 사명감을 갖고 교사의 직분을 감당하게 하소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6:2)

본문은 교회 안에서 발생한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까지 끌고 간 소송 문제에 대해 준엄하게 책망하며 소송에 대한 올바른 신앙적인 태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교회 공동체도 불완전한 인간들이 모여서 이루어진 조직체이기 때문에 분쟁이 전혀 없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내에서 성도들간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교회내에서 말씀으로 판단하는 등 신앙적으로 해결해야지 그것을 세상의 법정까지 들고 가서 세상의 기준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은 세상의 판단을 받아야 할 자들이 아니라 세상을 판단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즉 성도들은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며 이 세상과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하게 될 자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도들이 지극히 작은 일 하나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것은 실로 어리석은 일이 아닐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간의 문제를 세상 법정으로 가져가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마저 가리우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정녕 교회 안에 성도들의 사적 문제를 해결할 만한 지혜자가 한 명도 없느냐고 반문함으로써 그들을 호되게 책망합니다.

오늘날에도 교인들간의 송사 문제 때문에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본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요 그리스도 안에서 말씀으로 한 지체된 성도라면 은혜의 말씀을 분쟁 해결의 기준으로 삼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좇아 생활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복 / ① 주께서 세우신 믿음의 공동체 안에 사랑이 풍성하게 하소서. ② 각 교구가 기도와 말씀과 사랑으로 하나되게 하소서.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6:19, 20)

이 사회는 표면상 무척 풍요롭습니다. 그러나 매년 성범죄가 15%씩 증가하고 우리나라 미혼 여성들의 39%가 임신 중절의 경험이 있고 그 중에 약 60%가 2회 이상의 수술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오늘의 성은 그 본래의 목적과는 무관한 쾌락의 도구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본문을 보면 고린도교회도 이런 일에 직면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던 당시에든 오늘날처럼 극도의 윤리적 타락의 길을 걷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바울은 음행의 유혹에 약했던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음행의 죄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엄중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첫째, 몸은 음행을 하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주님 안에서 주어진 자유의 의미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내 것이니 내 마음대로 한다”는 식의 경거망동한 행동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이런 심각한 사태를 느낀 바울은 몸은 세상 사람들처럼 음행하라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주님을 섬기기 위해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성도는 정욕이 자신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늘 경성하여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성도들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입니다. 성도가 자신의 몸을 하나님을 위하여 드려야 할 중요한 이유는 성도 개개인의 몸 그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이며 그리스도의 귀중한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원수 마귀들은 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특히 오늘의 문화속에서 그릇된 음행의 욕구를 불같이 일으켜 우리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한 믿음으로 이 죽음의 유혹을 분쇄해 나아갑시다.

▶ 기도 제목 / ① 날마다 자신을 쳐서 그리스도께 복종함으로 육신의 정욕을 이기고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소서. ② 남녀전도회가 복음 전파의 사명을 다하게 하소서.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7:23)

러시아 속담에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전쟁에 나갈 때는 두 번, 그리고 결혼을 할 때는 세 번 기도하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혼인의 중요함과 의미를 일깨워 주는 말입니다. 우리는 또 “결혼에 실패하면 인생은 실패한 것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이는 결혼이란 많은 인생사 중 어떤 하나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생의 내용을 대변하는 가장 중요한 하나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릇된 윤리의식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혼인’의 참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첫째, 혼인은 하나님께 받은 은사대로 하는 것입니다. 혼인 제도는 이미 창조 당시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것입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된 나라를 위해 하는 것이며 바울처럼 스스로 고자된 은혜를 받은 자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혼자사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혼인하게 될 때 그 혼인은 소극적으로는 음행을 퇴치하는 길이며, 적극적으로는 하나님나라를 세우는 길이 됩니다. 현대를 사는 그리스도인들의 결혼관은 과연 어떻습니까?

둘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혼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은사대로 행하라는 권고의 깊은 이면에는 결혼을 하든지 하지 않고 혼자 지내든지,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서 사는 것이 우리 모두의 중요한 목적이란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새로운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가야 할 삶의 길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귀한 배우자를 주심에 대해 감사하며, 혼인해야 하는 자녀들을 위하여 귀한 배우자를 허락하소서. ② 이 나라에서 모든 악을 소멸시키고 도덕과 경제를 회복시켜 주소서.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하며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7:30)

지난 단락에서 바울은 성도들의 결혼 생활의 원리를 교훈한 1-16절의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17-24절에서는 성도들의 전반적인 삶의 원리에 대해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어 본문은 다시금 혼인문제로 돌아가 처녀의 결혼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크게 네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는 처녀의 결혼 문제와 관련하여 처녀 본인에게 권면하는 부분입니다(25-28절). 바울의 권면의 내용은 한마디로 처녀는 시집을 가지 않고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성도의 태도에 대해 교훈하는 부분입니다(29-31절). 이 부분에서는 처녀의 결혼문제와 관련하여 언급된 임박한 환난의 때에 이 세상의 것에 집착하기보다는 다시 오실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할 것을 말씀합니다.

셋째는 독신의 유익성에 대해 언급한 부분입니다(32-35절). 바울은 독신생활이 유익한 이유를 결혼한 자들은 배우자에게 마음이 빼앗겨 주를 온전히 섬길 수 없는 반면, 독신자는 마음이 갈리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길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넷째는 처녀 딸을 둔 부모에게 주는 권면입니다(36-38절).

이상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실은 바울은 결혼이 죄가 아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28절). 다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임박한 종말의 때를 살아가고 있음을 깨닫고 항상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우리 가정이 되게 하소서. ②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정을 가지고 국정에 임하게 하소서.

‘그런즉 너희 자유함이 악한 자들에게 거치는 것이 되지 않도록 조심하라’(8:9)

본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하였던 두번째 질문에 대한 사도 바울의 답변으로서 우상의 제물과 그리스도인들의 자유함에 대한 교훈이 기록된 말씀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의 고린도 지역은 이미 극심한 타락과 방종의 온상으로 소문이 나 있었습니다. 지리적으로 여러 곳의 사람들이 임의로 출입하기 쉬웠던 항구도시였기 때문에, 고린도 지역에는 온갖 우상 숭배가 성행하였고, 아울러 성적인 타락도 그 정도가 지나쳐 고린도라는 이름은 모든 죄악의 대명사격으로 사용될 정도였습니다.

이렇게 죄악의 관영함이 심각한 상태에 있었던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은 보다 심각한 신앙적인 문제에 부딪히게 되었는데, 그것은 바로 우상에 게 먼저 바쳐졌던 제물을 사람들이 먹는 과정에서 드러난 갈등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의 입장에서 여러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상에 게 바쳐졌던 제물을 그대로 취한다는 것이 양심의 문제로 크게 대두되었던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은 명확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의 자유에 관한 문제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율법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가 아니고 오히려 사랑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라고 단언합니다. 즉 그리스도인들이 가질 수 있는 자유의 기준이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바탕이 되었을 때에 진정한 가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 모두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영육간의 자유함을 율법이 아닌 사랑의 마음으로 실천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참된 사랑의 자유를 누리게 하소서. ② 이 사회가 장애인들을 이해하고 함께 사는 법을 깨닫게 하소서.

『이와같이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9:14)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로서 누릴 수 있는 실제적인 권리가 무엇이며, 또한 자신이 그러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는 분명한 자격이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과거에 예수 그리스도를 적대하는 사람이었으나,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 주님으로부터 직접적인 계시의 음성을 들었던 것을 밝히면서 또한 이제까지 나타났었던 많은 복음의 능력들을 강조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강력히 변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이 마땅히 교회로부터 생활의 기본권을 보장받아야 할 권리가 있음도 아울러 강조합니다. 더욱이 많은 사역자들이 그러했던 것처럼 자신도 결혼하여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도 강조합니다. 실제로 이러한 일들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시대의 율법은 말할 것도 없이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도 이러한 사실을 가르쳐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문에서 더욱 중요한 한 가지의 사실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히려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단 한가지의 목적, 복음 전파를 위한 것이었음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바울이 참된 겸손과 헌신, 그리고 예수의 사랑으로 오직 복음만을 위해 살기로 하였다 는 신앙고백입니다.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서도 이처럼 복음으로 사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도 지극한 겸손과 헌신, 그리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가는 사랑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② 서만수 선교사(인도네시아)의 사역이 풍성한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여러 사람에게 내가 여러 모양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몇 사람들을 ...』(9:22)

우리는 신약성경의 기록들을 통하여 사도 바울의 다양한 인생 경력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율법에 정통한 학자로, 그리고 실제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었던 정치가로, 또한 유대사회의 지도층 인사로 온갖 부귀와 영화를 누리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던 패기만만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어느날 그 마음 중심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찌우고 어찌하든지 다른 사람들 위에 올라서려고만 애를 쓰던 청년 사울이, 이제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기를 자원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들어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가는 바울은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행하던 자유함을 기꺼이 포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섬기며 복종하고 타인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혈기 왕성한 젊은 청년 사울이 모든 사람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사도 바울로 변화된 이 엄청난 사건의 원동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음으로 모든 죄와 사망과 율법의 속박에서 완전히 자유하게 되었기에 가능해진 일입니다.

이 자유함을 바탕으로 바울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하여 자신의 삶을 온전히 헌신하였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에 참여하고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하였던 바울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실제적인 헌신의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위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소서. ② 육호기 선교사(독일)가 사역하는 비스바덴교회와 프랑크푸르트장로교회가 날로 부흥하게 하소서.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10:11)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생명의 말씀입니다(딤후 3:16).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표준은 성경 말씀에 있으며, 그 말씀은 정확무오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에 나타난 모든 사건들이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과 조금도 어긋남이 없이 똑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보다는 오히려 성경에 기록된 삶의 양식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양식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은 명백한 사실입니다. 실제로 성경의 대부분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민족의 고대 역사 속에 나타났던 사건들을 중심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된 배경에는 그 시대의 문화와 풍속, 그리고 사회적인 통념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한 데 어우러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는 사랑, 평화 기쁨과 같은 긍정적인 요소들이 있는 반면에, 전쟁과 살인, 성적인 타락과 권모술수와 같은 부정적인 모습들도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기록된 말씀 그대로 본래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바울은 본문에서 성경에 기록된 그러한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거울이라고 강조합니다. 성경의 기록이 그 기록으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영육간의 경계(警戒)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생명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며 지키는 신실한 성도의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 기도 제목 / 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신앙인들이 되게 하소서. ② 이준교 선교사(이집트)의 사역으로 현제인 목회자들이 많이 배출되게 하소서.

『...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10:31)

본문에는 우상의 제물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우상의 제물 먹는 것을 금지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성찬에 참여함으로 주님의 피와 몸에 참여하게 되듯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면 우상에게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인들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들에게 하는 것이므로 그 제물에 참여하는 것은 귀신들과 교제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동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주님의 잔에 참여하고 또 귀신의 잔에도 참여한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진노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우상 제물의 문제에 있어서 양심을 따라 행동하라고 하였습니다. 당시 고린도의 시장에서는 종종 우상에게 제사 지낸 고기들이 판매되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이 시장에 나가서 고기를 살 때에 일일이 그것이 우상에게 제사 드린 것인지 아닌지를 물을 필요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혹시 누가 옆에서 그것이 우상의 제물이라고 가르쳐 주면 그 말해 준 사람과 양심을 위하여 먹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그것을 알게 해 준 사람을 시험에 들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더라도 다른 사람의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말라고 권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먹는 일이나 무엇을 하든지 각자 양심을 따라 행하되 다른 사람의 양심도 존중히 여길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게 하여 주소서. ② 김주경 선교사(이스라엘)가 계획하는 성지연구so견립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11:3)

본문에는 고린도교회에서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습관에 대하여 말해 주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개신교는 여인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도록 하고 있으나, 당시에는 머리에 수건을 씌우로서 상급자들에게 그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사도 바울은 당시의 습관을 따라서 여인들이 머리를 가림으로써 자신이 권위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시하도록 지시하였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이며, 여자의 머리는 남자라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머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본질적으로 하나님보다 열등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직분의 순서에 있어서 하나님이 앞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와같이 남자가 여자의 머리라고 하는 것도 여자가 남자보다 본질상 열등하다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그 직분의 순서상 여자보다 앞선다는 것을 말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에 남자도 그리스도의 권위 아래에 있었기 때문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것이 마땅하였습니다. 그러나 남자는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기도 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도 속하지 않으시므로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말라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여인은 남자에게 속했다는 표시로서 수건을 쓰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습니다. 바울은 남자의 본성 자체가 머리가 길면 수치스럽고, 여인이 머리를 밀면 수치스럽듯이 이러한 질서는 자연스런 본성에 따르는 것이라고 한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남자와 여자의 본분을 잘 지킬 수 있게 하소서. ② 안식령 선교사(수리남)의 사역이 결실을 맺게 하소서.

“...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 기념하라 ...”(11:25)

사도 바울은 고린도교회의 성도들이 무질서하게 성찬에 참여하는 것에 대하여 책망을 하였습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각자 음식을 준비해 와서 자기가 원하는 때에 잔과 떡을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사람은 하나도 먹지 못해 시장하였고 어떤 사람들은 많이 마시고 취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부유한 사람들만 음식을 먹고 가난한 사람들은 아무것도 먹지 못하는 당시의 만찬에 대하여 책망을 한 것입니다.

성만찬의 예식은 주님께서 주신 규례입니다. 주님께서서는 잠하시던 전 날 밤에 축사하시고 제자들에게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 떡은 인류를 위하는 주님의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자신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식후에 잔을 가지시고 이 잔은 자신의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주님을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따라서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님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에 그릇된 태도로 참여하면 주님의 몸을 범하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바울은 실제로 당시의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이 일로 인하여 많이 병들고 죽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성도들에게 이제부터는 좀 더 기다렸다가 다같이 함께 들도록 지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장하면 집에서 먹으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들도 주님의 성만찬에 올바른 마음과 자세로 참여하여 주님을 기념하며 축복받는 성도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성찬에 올바르게 참여함으로 우리들이 큰 축복과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은태 선교사(홍콩)의 사역으로 중국에 복음이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느니라”(12:11)

고린도교회에 문제가 되었던 또 한 가지 문제점은 은사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고린도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은사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은사를 무질서하게 사용함으로 교회에 많은 혼란을 야기시켰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은사의 사용 문제에 대하여 고린도교회 성도들에게 지시를 하였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신령한 일에 대하여 무지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우리가 믿기 전에는 이 세상 신이 이끄는 대로 끌려 다녔지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오신 후에 우리들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누구도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한 성령을 받았지만 우리의 직분과 은사는 각각 다릅니다. 은사는 다르지만 성령은 같고, 직분은 다르지만 주님은 같으며, 역사하는 방법도 다르지만 모든 사람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같습니다. 이러한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교회에 유익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은사를 받아서 잘 활용함으로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은사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신유의 은사, 능력, 예언, 영 분별, 방언 통역 등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다 성령께서 자기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받은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에 유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신 은사를 잘 사용하여 교회에 유익을 주고 성도들을 잘 섬길 수 있게 하소서. ② 김영대 선교사(수단)의 사역으로 수 단인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게 하소서.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12:12)

교회의 지체들은 몸의 지체와 같습니다. 몸은 하나이지만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지만 한 몸임과 같습니다. 우리는 손이나 발더러 쓸데없다고 하거나, 또는 어떤 부분이 더 소중하니 이것은 소용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몸의 지체는 아무리 많고 다양해도 모두가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의 지체들도 그러합니다. 어떤 지체는 소중해서 귀중히 여김을 받아야 하고 어떤 지체는 쓸데없어서 외면당하는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도리어 부족한 지체가 있으면 부족한 부분을 채워 주어야 하며 고통받는 지체가 있으면 함께 고통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고통을 받고 함께 즐거워하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가 가지는 지체의 특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교회를 세워 나가기 위해서 은사를 사모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신 은사를 통해서 지체된 성도들을 세우며 도와야 합니다. 은사는 나만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은사는 모두가 소중하게 사용하여야 하며, 서로를 유익하게 하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일에 사용하여야 합니다. 은사에 순서가 있다거나, 어떤 은사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은사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등의 태도는 옳지 못합니다. 은사로 인해 분쟁이 일어나거나 서로간에 차별이 생긴다면 스스로 자기의 몸을 자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를 통해서 서로를 섬기는 법을 배워야 하며 교회를 세워 나가는 지체들이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 기도 제목 / ① 우리에게 주신 은사로 몸된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② 유병세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인술과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도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13:13)

가장 큰 은사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에서 성령의 은사들을 다양하게 제시한 후에 이같은 은사들보다 더욱 큰 은사, 제일 좋은 은사가 바로 사랑의 은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3장은 사랑의 은사에 관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고 할 수 있습니다. 1-3절은 사랑의 가치를 노래하고, 4-7절은 사랑의 덕목을, 8-13절은 영원한 사랑의 승리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은 왜 이렇게 모든 은사보다 위에 있습니까?

첫째로,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근원이 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큰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아무리 많은 봉사와 헌신과 섬김의 본을 보였을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거기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사랑이 없는 믿음과 소망은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 사랑은 모든 것을 이루는 율법의 완성입니다. 사랑의 덕목에 관한 아름다운 칭송들은 아무리 노래할지라도 부족합니다. 사랑의 덕목들은 바로 주님의 모습이며, 그것이 곧 율법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사랑은 영원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주님을 사모하게 합니다. 주님에 대한 사랑은 그분을 뵙고 싶어합니다. 그래서 언젠가 주님을 밝히 뵈게 되는 그날에 주님에 대한 사랑은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영원할지라도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 것입니다. 이같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처럼 사랑의 은사로 섬기며 살게 하소서. ② 김형선 평신도선교사(뉴질랜드)가 섬기는 교회가 날마다 부흥하게 하소서.

『... 교회의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14:12)

은사의 목적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자기만 위하거나, 어떤 이익을 얻기 위해 은사를 사용하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은사는 생계의 수단이 아니며, 종교적인 과시용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문에는 당시에 고린도교회에서 혼란스럽게 일어났던 방언의 요란함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너나 없이 방언을 하였으며, 모든 사람들이 방언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은 방언의 은사에 매달릴수록 은사에 관한 본래의 목적을 상실하고 있었으며,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알지 못한 채 자신의 방언을 과시하려는 듯이 모두가 방언에 매달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같은 교회의 소란스러움을 지적하였습니다. 만일 교회에 덕을 세울 목적으로 방언을 하려 한다면 통역의 은사까지도 받아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언이나 예언으로 자신을 과시하려는 움직임을 지적하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을 통해서 참으로 교회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들보다도 더 많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전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바울 사도는 일만 마디의 방언보다도 깨달은 마음으로 다섯 마디의 말을 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은사를 생각할 때 먼저 교회의 덕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덕을 세우기 위한 은사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교회의 덕을 세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이기성 평신도선교사(호주)의 사역이 큰 결실을 맺게 하소서.

☞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14:33)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십니다. 은사가 덕을 세우기 위하여 활용되는 이유도 하나님이 화평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고린도교회에는 방언이 모든 은사보다 인기를 누렸던 것 같습니다. 방언으로 온 교회가 들썩일 정도로 사람들이 모이면 방언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방언은 자신에게는 유익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나 초신자들에게는 혼란을 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차라리 예언을 사모하여 예언의 은사를 질서 있게 활용하는 것이 교회와 초신자들에게 더 유익하다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언에도 질서가 있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방언과 예언의 은사는 자칫 잘못하면 교회의 질서와 덕을 깨뜨리기 쉽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예언이나 방언을 할지라도 적당하고 질서 있게 은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방언이 예루살렘교회의 방언과 다르게 나타났다는 점을 기억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방언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예언은 점을 치거나 막연한 미래를 말해 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말씀을 현재에 잘 적용할 수 있도록 주시는 지혜의 말씀임을 기억하고 잘못된 예언의 사용을 금해야 할 것입니다. 때때로 오늘날 어떤 사람들은 예언 기도를 받거나 예언으로 미래의 일을 알려고 하는 잘못된 경우도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주신 은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여 교회에 덕을 세워야 하겠습니다.

- ▶ 기도 제목 / 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은사를 잘 사용하게 하소서.
② 고은빈 평신도선교사(케냐)의 어린이 사역이 아프리카를 복음으로 변화시키는 밑거름이 되게 하소서.

『...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15:12)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는 유명한 부활장입니다. 본장에서 바울은 먼저 예수님이 부활하신 역사적인 사실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도 부활할 것이니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답게 살자’ 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교회 교인들 중에는 예수님의 육체의 부활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육체는 추하고 열등한 것이며 영은 고상하고 육체에 비해 우월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헬라 철학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육체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려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들의 의심과 같이 만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의 부활도 있을 수 없으며 기독교 신앙 자체는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인들은 보장되지 못할 내세를 위해서 살아가는 불쌍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러니 부활을 의심하는 신앙이 얼마나 어리석은 신앙입니까? 바울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모습을 실제로 목격했던 사람들 중에 살아 있는 사람들도 있으며 바울 자신도 부활의 주님을 보았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결코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지 말고 확신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신비한 영역에 대해서는 믿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들은 유한한 인간의 이성과 과학을 절대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을 가능케 하시는 분입니다. 성경의 모든 사실에 절대 신뢰하는 사람이 진정한 신앙인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절대 신앙을 주소서. ② 김철영 평신도선교사(일본)의 사역으로 복음이 더욱 널리 전파되게 하소서.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15:34)

주님의 부활을 증거한 다음 바울은 이제 우리도 부활할 사람임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은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의 부활을 보증하는 첫열매라는 것입니다. 아담으로 인해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되었지만 이제 그리스도로 인해 주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아담으로 인해 인간은 사망의 노예가 되었지만 이제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믿는 사람은 더 이상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고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주님의 영원한 생명에 동참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같은 생명을 확신하는 사람, 부활신앙을 분명히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삶의 방식과 태도가 달라져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세가 없는 사람이야 현세의 모든 안락을 추구하며 현세에 전부를 걸고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32절) 하겠지만 분명한 내세가 있는 사람은 저 영원한 삶을 바라보며 살아가기 때문에 삶의 태도와 방식이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바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핍박도 고통도 달게 받은 사람입니다. 에베소에서는 맹수와 더불어 싸워야 했다고 했습니다. 때마다 위험을 무릅썼으며 날마다 죽는 고난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확신하는 사람은 내세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현세를 사는 동안 죄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깨어서 의를 행하고 부끄럽지 않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 기도 제목 / ① 내세를 소유한 사람답게 깨어서 의를 행하는 사람되게 하소서. ② 북한에 남아 있는 성도들이 신앙의 용기를 잃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며 복음으로 통일되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소서.

『...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15:58)

본문에서 바울은 쉬운 예를 들어서 부활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씨앗 비유'입니다. 우리는 밀이나 보리의 씨앗을 뿌립니다. 그러나 씨앗 자체에는 밀과 보리의 형체가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밀과 보리가 자라는 모습을 한번도 보지 못했다면 씨앗만 보고 결코 밀과 보리의 모습을 알아내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지만 씨앗이 땅에 뿌려져 썩으면(죽으면) 그 씨앗 속에 감춰진 형체가 나타나 자랄 것입니다. 밀의 씨에는 밀의 형체가, 보리의 씨에는 보리의 형체가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의 육체에도 죽은 후에 자라날 형체가 숨겨져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가 있는가 하면 땅에 속한 형체도 있습니다. 자연인으로 인간은 모두 다 아담의 후손이니 일단은 땅에 속한 형체를 입은 자입니다. 아담은 땅에서 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섬기는 사람은 이제 하늘에 속한 형체를 입은 자로 바뀌진 자들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썩을 육체가 썩은 다음, 곧 죽은 다음에 신령하고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나타날 형체를 가진 자이면 가 아니면 부끄럽고 치욕스런 모습으로 나타날 형체를 가진 자 중에 하나가 될 것입니다. 사망을 왕으로 삼고 사망의 종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영원히 멸망받을 멸망의 형체로 나타날 것이고 생명의 주님을 모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절대 확신하며 사는 사람은 영원한 영광의 삶에 들어갈 영광스럽고도 신령한 형체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 사실을 확신하며 더욱 주의 일에 힘쓰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 기도 제목 / 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제 2교육관 공사가 어려움 없이 진행 되게 하소서.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16:14)

바울은 기근을 만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루살렘교회를 위해서 고린도교회 교인들이 헌금할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평소에 스스로를 가리켜서 이방인을 위한 사도라고 말한 사람입니다. 이방인을 위해서 평생을 사역하겠다는 각오가 담겨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 바울이 이방인을 위해서 사역하겠다고 하여서 이방교회의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교회의 어려움을 못본 체 하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에는 베드로를 위시한 교회 지도자들이 관계하고 있는 곳입니다. 사실 바울은 처음에는 예루살렘에서 사도로 인정받지도 못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예루살렘교회에 대해서 섭섭한 마음이 남아 있을 수도 있으며, 오히려 자기가 개척한 교회의 확장에 정신이 팔려 모체가 되는 예루살렘교회의 어려움은 쳐다볼 생각도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바울은 역시 큰 그릇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고린도교회 교인들에게 매주 한번씩 특별헌금을 하여서 저축하여 두었다가 예루살렘교회를 지원하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이와같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않으며 사심이 없으며 누구라도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운명 공동체로 여기고 어떤 어려움도 함께 도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내가 관여하는 그 일에만 최선을 다하고 나하고 직접 관련되지 않은 일에는 모른 체 해서는 결코 순수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나의 일'도 '우리의 일'도 아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오직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 기도 제목 / ① 사심없이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② 금년에도 함께 하신 하나님, 97년도에도 눈동자같이 보호하소서.

구역예배공과

구역예배순서

찬 송	다같이
성경봉독	사회자와 교독
구역공과	인도자
기 도	인도자
주기도문	다같이

- ▶ 구역예배 소요시간은 최소한 40분 정도가 적합합니다.
다. 인도자의 지도에 따라서 최선을 다할 때 은혜가
넘치는 구역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 43 과

창세기 서론

읽을 말씀 / 창세기 1장 1절
히브리서 12장 6절
찬 송 / 75, 204장

◆ 저 자

창세기에는 저자의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지만, 성경 전체와 교회 역사는 모세가 본서의 저자임을 한결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오경 전체가 모세의 저작이라는 증거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출 17:14; 왕상 2:3; 왕하 14:6; 마 8:4; 행 26:22 등). 사실 이스라엘 역사상 모세보다 오경을 기록하기에 더 적합한 사람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 연 대

모세가 살았던 역사적 기간은 열왕기상에 의해서 어느 정도 명확하게 밝혀질 수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는 “솔로몬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년”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왕상 6:1)과 동일한 연도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자가 주전 966년이

기 때문에 후자는 주전 1446년임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모세는 광야 40년 기간(주전 1446-1406년)에 이 오경을 기록했던 것입니다.

◆ 주 제

본서는 만물의 기원에 관해 말해 주며 인간의 죄, 구원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직접 관계하시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하나님께서 인간과 함께 하시고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거해야 함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 전체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도 근본이 됩니다. 창세기의 메시지는 풍성하고 복잡적이며 성경 전체 메시지의 간결한 개요를 제공해 줍니다.

◆ 내 용

창세기는 천지만물과 인간의 기원에 관한 책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신정 정치 수립에 초석이 된 가나안 땅에 관한 언약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어 그와 언약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 목적하심은 아브라함을 통해 전 인류에게 하나님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 개 관

본서는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하나님과 인간과의 행위 언약, 타락, 징계, 은혜 언약,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스라엘 족장들의 이야기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만물의 기원에 대한 대답, 구속사의 시작, 민족의 선택의 문

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창세기는 다시 크게 2부로 나뉘지는데 제1부는 1-11장으로서 천지 창조를, 제2부는 12-50장으로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되는 족장들의 삶을 다루고 있습니다.

[1] 만물의 기원과 인류의 역사(1-11장)

1. 천지 창조 / 1:1-2:25
2. 인간의 타락 / 3:1-24
3. 문명의 시작 / 4:1-5:32
4. 노아와 홍수 / 6:1-9:29
5. 노아의 후손과 바벨탑 / 10:1-11:26

[2] 족장의 역사(12-50장)

6. 아브라함의 생애 / 12:1-25:18
7. 이스마엘의 자손들 / 25:12-18
8. 이삭과 그의 후손들 / 25:19-26:35
9. 야곱의 생애 / 27:1-36:43
10. 요셉의 생애 / 37:1-50:26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자들입니다. 만물의 주인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 44 과

창조 시대

읽을 말씀 / 창세기 1장 26-31절
찬 송 / 78, 403장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만물의 기원에 관한 허황된 신화에 사로잡혀 있기도 합니다. 진화론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이스라엘을 둘러 싸고 있는 주변 국가들의 상황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 국가들은 동물이나 별을 마치 신이나 된 것처럼 섬겼으며, 강력한 악의 세력들이 바다와 공중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러나 천하만물은 하나님의 섭리로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한 세계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것입니다. 영국의 과학자인 홀데인은 "우주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기묘할 뿐 아니라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더 기묘하다"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무엇보다 우주의 신비함과 광대함은 우리의 상상력을 사로잡고 창조 문제에 대한 우리의 호기심을 자극할 것입니다. 거기에는 셀 수 없는 미지의 사실들과 참으로 '믿을 수 없을 것 같은' 많은 일들이 들어 있습니다.

창세기에는 창조 시대를 네 가지 주요한 사건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1. 천지 창조

—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창세기 1-2장).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과 뜻으로 천하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후에 이것들을 다스릴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육신의 모양을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인격적이고 영적인 자태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인간은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인간은 창조적인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속성들이므로 인간이 나누어 가진 것입니다.

1) 창세기 1장에서 '좋았더라'는 표현은 모두 몇 번이며 그 절은 어디 어디 일까요? 그리고 이 표현은 언제 사용하셨나요?

2. 타락

— 죄가 세상에 들어왔습니다(창세기 3장).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에 죄가 들어왔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뱀의 모습으로 나타난 사단의 유혹을 받아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명령을 거역했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는 사망이 찾아 왔으며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땅에는 저주가 임했습니다. 모든 시대 전체 인류의 모든 고통과 모든 악과 모든 괴로움의 원인은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사람들의 범죄는 엄청난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 타락의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원시복음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나타나는 여자의 후손은 누구를 가리키는 말일까요?

3. 홍수 심판

— 죄에 대한 심판(창세기 6-10장)

타락 이후 700년이라는 세월이 흐르는 동안 인류의 수가 크게 번성하면서 그들의 죄악도 그만큼 크게 번성했습니다. 죄가 관영한 땅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러나 미리 피할 길을 예비하셔서 노아를 통하여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그 은혜의 기간 동안 세상은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더욱 악하게 부패하여졌고 세상은 온통 죄로 물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홍수 심판은 그들 위에 임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모두 죽게 되었기에 하나님은 병든 세포 조직을 도려내고 건강한 조직을 보호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방주를 예비하게 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홍수 심판에서 피할 수 있었습니다.

1) 노아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주신 언약은 무엇이었습니까(9:13)?

4. 바벨탑

— 민족의 기원(창세기 11장)

홍수 이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명은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인류는 이 명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한 곳에 모여 살면서 자기들을 기념하는 바벨탑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이 거대한 회중의 언어를 혼잡케 하셔서 서로 다른 언어를 구사하게 만드셨습니다. 결국 사람들은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더 이상 바벨탑을 쌓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끼리 사방으로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징계이기도 하고 민족의 기원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의미가 그곳에 있습니다. 인류가 세계 도처로 흩어짐으로써 죄의 성장이 어느 정도 억제되는 효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것은 언어가 혼잡하고 각처로 흩어짐으로써 죄를 공모하고 결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목적을 세우시고 그 계획을 역사의 과정 속에서 점진적으로 계시하며 거기에 맞추어 구속 역사를 이루어가십니다.

제 45 과

족장 시대

읽을 말씀 / 창세기 12장 1-3절

찬 송 / 93, 421장

창세기의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타락한 백성들이지만 하나님은 구원하시기를 원하셨고 그들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약속의 역사로서 읽어야 합니다.

창세기에는 위대한 4명의 족장이 등장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창세기는 단순히 영웅들의 전기가 아닌 것입니다. 오히려 족장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실수와 허물 중에 살았던 인물이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족장들 개인의 역할이나 능력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의 놀라운 능력으로써 친히 실현시키심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약속을 주신 이도 하나님이지요 그 약속을 이루시는 이 역시 하나님이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약속을 가진 족장들이 배워야 할 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1. 아브라함

— 히브리 민족의 조상(창세기 12-23장)

하나님께서서는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구속 메시지를 전달할 어떤 민족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 하나님은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 되는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에게 나라(땅)와 셀 수없이 많은 후손(씨)과 온 세상에 미치는 영구한 영향력(복)을 약속하셨습니다.

본래 아브라함은 고도로 문명화된 도시였던 갈대아 우르(티그리스강과 유프라테스 강 사이의 지역)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은 우상의 도시로서 이방의 죄악이 깊이 물든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나의 벗이라 하시고 선민의 조상을 삼으셨으며(창 12:2) 메시아의 혈통으로 선택하셨습니다(창 12:3, 22:18).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선민의 표징으로 할례의식을 창설하였으며(창 17:8, 10) 손 대접하기를 힘쓰다가 세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고 천사들의 예언을 들은 뒤 여섯 차례나 의인의 수를 밝히면서 중보기도를 드린 것은 우리에게 귀한 교훈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신앙의 표현과 하나님께 대한 순종은 독자 아들을 하나님께 드린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몰랐어도 인도자는 알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율법과 복음, 선민과 이방인까지 모든 사람에게 신앙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2. 이삭

— 두번째 언약의 조상(창세기 24-26장)

이삭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열국의 어미 사라 사이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출생한 아들입니다. 하나님께선 언약하신 대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아들을 안기심으로 그들의 해학적 웃음을 참된 기쁨으로 바꾸

어 놓았던 것입니다. 이삭은 인간의 합리성과 자연질서를 초월하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얻은 생명이기 때문에 은혜의 동사격인 '웃음'이 그의 이름이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물로 바치라고 명령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순종의 결단 만큼이나 이삭도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하는 순종이 놀라웠습니다(창 22:2-13). 이 두 부자의 충성된 신앙을 보시고 수풀 속에 준비해 두었던 수양으로 번제를 대신한 일은 하나님이 언약의 온전함을 보여 주는 사건입니다.

3. 야곱

-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창세기 27-35장)

야곱은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의 손자이며 아버지 이삭과 어머니 리브가 사이에서 태어난 쌍둥이 중의 동생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의 뜻은 '발꿈치를 잡았다'는 뜻인데 상당히 경쟁적이며 투쟁적인 성품의 소유자임을 말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을 때 그는 독자로 하여금 '어찌하여 이런 사람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갖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선 야곱에게 엄청난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창 28:13-14).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은 인간 행위의 보상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맺은 계약과 하나님의 아들 명분(장자)으로 인하여 주어진다는 것입니다(갈 4:6-7).

아브라함이 히브리 민족의 조상이라면, 야곱은 이스라엘 국가의 조상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아들들이 각기 이스라엘 국가를 구성하는 열 두 지파의 조상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4. 요셉

－ 애굽의 총리(창세기 37-50장)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아브라함의 언약을 가장 성실하게 받아들였던 인물은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하나님의 계약이 성취되었다는 점에서 그는 성화된 신자의 표상이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셉을 통하여 장차 오실 그리스도의 모습이 어떠한가를 찾아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요셉은 그리스도의 예표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요셉	그리스도
(1) 야곱의 총애를 받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음
(2) 양치는 목자	선한 목자
(3) 형들의 미움을 받음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미워함
(4) 꿈꾸는 자	예언자
(5) 12형제	12제자
(6) 은 20냥에 팔림	은 30냥에 팔림
(7) 형들이 요셉을 팔음	제자가 예수를 팔음
(8) 애굽의 총리가 됨	하나님 우편에 앉게 됨
(9) 형들의 경배를 받음	인류의 경배를 받음
(10) 양곡정책을 잘함으로 천하를 구원함	생명의 양식으로 만민을 구원함
(11) 투옥됨	십자가에 달리심
(12) 감격의 눈물로 생을 끝냄	부활과 승천으로 끝남

제 46 과

출애굽기 개요

읽을 말씀 / 출애굽기 3장 6-15절

찬 송 / 424, 466장

창세기는 약속의 땅이 아닌 외지에서 선민이 속박당하는 것으로 끝나지만 출애굽기는 구속의 사역과 그 경험을 설명(그리스도인이 떠나야 한 것)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민(選民)이 고통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한 그의 위대한 구원 사역을 이루심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는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체결한 율약(창 15:12-21)에 근거합니다.

따라서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그 근거를 두고 있으며, 나아가 제사 제도와 성막 제도를 다루는 레위기, 그리고 광야 방랑기인 민수기와 모세의 회고 기록인 신명기에까지 그 영향을 미치는 오경의 가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주제와 특징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한 것과 해방된 것, 즉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근거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의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된 오늘날 우리 각 사람이 죄의 종에서 구속함을 받고 거룩한 성도의 생활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생활과 같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1. 선민의 탄생과 구속 그리고 율법과 제사의 기원을 보여 줍니다.

2. 본서는 구속 사역의 준비사인 창세기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의 생활 지침인 율법서, 곧 오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3. 또한 본서는 구약의 어느 책보다도 신약과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는 책이며,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에 관한 모형적 사건들이 빈번히 나타나고 있는 '구속계시의 책'입니다.

◆ 기록 목적

1.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창 15:14, 출 3:7), 마침내 그것을 역사 속에서 성취해 나가시는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의 신실성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2. 구약의 십자가 사건인 유월절 어린 양의 구속 사건을 통하여, 택한 백성을 압제와 죽음으로부터 구원해 내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전능하신 주권을 계시하고 있습니다.

3. 시내산을 중심으로 일어난 율법 제정을 통하여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불순종해서는 안되는 영원한 진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4. 이동 가능한 성전(성막)은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리스도"(요

1:14)요, 우리들을 위해 간구하시는 대제사장(히 7:25)이심을 보여 주면서
선민 이스라엘을 신정 국가로서 공식 출범시키기 위하여 기록하고 있습
니다.

◆내용 요약

1. 구원

－ 애굽의 노예 상태에서부터 해방됨(출애굽기 1-18장)

히브리 민족은 400년 동안 애굽에 거주하면서 진정한 자유를 맛보지
못했습니다. 결국은 노예생활을 벗어나기 위하여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
었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앞세우시고 그들을 출애굽 시
키십니다.

애굽에 내린 열 가지 재앙, 홍해를 건너는 사건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즉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을 향하여 그들을 인도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2. 시내산 언약

－ 시내산에서 주신 하나님의 계명들과 성막(출애굽기 19-40장)

출애굽한 히브리 민족은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 일체감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바로 세우기 위하여서 시내산에서 장막
을 치게 하고 모세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습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께서 친히 손가락으로 돌판에 새겨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에 순종
하면 풍성한 복을 내리시고 불순종하면 두려운 저주를 내리시겠다고 약
속하셨습니다(19-24장).

십계명을 주시고 난 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에 대

하여 집중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막은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 꾸며진 하나님의 거처이며 이스라엘 백성의 삶의 중심지였습니다(25-40장).



가정예배 안내

■ 예배순서

찬 송	다 같이
성경봉독	사회자
메시지 낭독	
기 도	다 같이
주기도	다 같이

• 예배 소요시간

약 15분 내외가 적함

• 예배 사회자

가장 또는 가족이 돌아가면서 순번제로 인도

• 찬송과 성경 본문

가정예배 안내서의 해당 일자에 소개된
찬송을 부르고, 성경 본문을 봉독